

일제하 음악사회의 성격

[1] 1930 년대의 가요정화운동

노래가 그 사회의 얼굴이고보면 이 시기 나온 민요조의 고우타인 「출범의 항구」, 「풍파의 항구」, 「당신 그림자」, 「토쿄행진곡」 등과 30년대 일본 가요계의 우상인 고가마사오(古賀政男)가 부른 「술이란 눈물인가 한숨인가」, 「여보 왜요?」 등이 일본 대중을 폭발적이면서 어둡게 휘어잡아가고 있었다. 동시에 라디오·레코드 등의 매스 미디어의 보급·발달로 민요조의 ‘고우타’나 유행가는 남녀노소에 대한 커다란 영향과 감화로 사회를 묶어주고 있었다. 이러한 음악이 한국에서 크게 유행하는 것은 음악소통 전개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폭력적으로 입력시킨 같은 음악의 요소체계로 되어 있다는 점,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파시즘이 가일층 강화된다는 점, 일본의 대중매체자본과 기술이 독점한다는 점, 한국어로 바꾸어 일본노래를 소통시킨다는 점 등 때문이다. 바로 이 요소들에 의한 노래들이 30년대 후반 미나미 통치체제 앞에서 눈물과 애수·정한·사랑·이별·도피·한숨 등을 나타낸 「홍도야 우지 마라」(1935), 「목포의 눈물」, 「나그네 설움」, 「알뜰한 당신」 등의 대중가요가 대중적 삶을 압도하며 그 시대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1935년 눈물의 여왕 전옥과 차흥녀 주연의 기생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사랑에 속고 돈에 울어」라는 연극으로 동양극장과 부민관에서 상연되어 장안을 전례없이 열광케 하자 이 작품의 주제가 「홍도야 우지 마라」(김준영 작곡, 이서구 작사, 김영춘 노래, 콜롬비아 레코드사)도 공전의 히트를 하였다.

이뿐 아니라 1938년 백년설로 하여금 가요계 정상으로 올라서게 한 「나그네 설움」, 또 같은 해 기생출신이자 세류춘풍의 자태로 대중을 매혹한 이화자의 대표작 「알뜰한 당신」이나 ‘이난영’이 있음으로 해서 그 시대가 있었던 「목포의 눈물」 등

악보 1.1: 홍도야 우지 마라

紅桃야 우지 마라

이서구 작사
김준영 작곡

사 - 랑 을 - - 팔 고 - 사 - - 는 꽃 바
 람 - 속 - - 에 - 너 - 혼 - 자 -
 지 - 키 려 - 는 순 정 의 등 - - - 불 -
 홍 도 - 야 - 우 지 마 - 라 오 빠 -
 가 있 - - - 다 - 아내 - 의
 나 갈 길 - 을 너는 지 켜 - - - 라 -

30 년대를 누볐던 대표작은 기실 일본음악체계였다.¹

악보 1.1 이 계명으로 ‘파’와 ‘시’가 전혀 출현하지 않는 ‘도·레·미·솔·라’라는 오음음계²로서 ‘요나누키 음계’를 가리키며 그 리듬도 우리의 전통 장단과는 전혀 다른 2박자의 일본 음악이 아닌가!

이와 같이 30 년대는 우리 음악이 사라지고 음악의 식민화가 이루어지는 시대였다. 다만 실존적 정만을 산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음악체계에서 가사의 문제성을 지적함으로써 순수 서양예술음악의 가치를 확보한다고 정당화시킨 것 외에³ 민족음악 현실의 치열한 인식이 없었던 음악인들은 쉽게 일본 제국주의의 ‘가요정화운동’에 달라붙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조선문예회였고 우리는 여기에 참여했던 현제명·홍난파·이면상·박경호·이종태·김영환·윤성덕 등의 양악인과 함화진·하규일 등의 전통음악인 그리고 최남선·이광수·김억·방응모 등과 일본음악인 오바(大場勇之助)·요시자와(吉澤實)·안토(安藤芳亮) 등과 일본 작가 카미타·타나카·테라모토·토쿠다·스키모토 등이 공동으로 작사 작곡하여 발표했던 가요들을 기억하게 된다.

[2] 시국가요의 창작과 보급

앞서 조선문예회에서 주로 일본 음악 체계에 의하여 “시국·애국·건전가요”를 일제의 권력구조에 편승하여 작품을 내놓은 김억, 최남선과 음악인 이면상·이종태·현제명·홍난파 등은 관제 단체를 통하여 창작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었다. 1938년에 접어들자 “조선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창설(2월)되고, 3월에 조선 교육령이 개정·공포되면서 중등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폐지, 본격적인 전시동원체제로 치달을 때 음악제도권 전체가 앞장서서 40 년대를 고대하며 30 년대말을 장식하고 있었다.

대중가요는 김관이 지적한 것처럼 ‘에로티시즘’과 ‘센티멘털리즘’으로 비판할 뿐 아니라, 시국가요 창작으로 ‘가요정화운동’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방송을 통하여 강화시켜 나간다.

난과 홍영후는 “천황의 뜻을 받아 일장기 날리는 것이 자자손손 만대의 복누릴 희망의 아침”이라고 민족을 얼리고 있었으니 그는 민족적 수절을 고수하던 20 년대의 그가 아니었다.⁴ 그의 「희망의 아침」은 황민의 희망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악보 1.2는 사단법인 조선방송협회에 전시동원체제를 찬양한 대부분의 일본음악

¹1930 년대 음악에는 단조요나누키가 많다. 이와 같은 왜색조의 노래가 아직도 이른바 ‘전통가요’라 하여 대접받고 있으니 전통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게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²다섯 음으로 이루어진 음계. 민족음악이나 전통음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계이지만 장단조 요나누키도 독특한 오음음계이다.

³자신들의 친일적 행위에 대한 자기 비판은 고사하고

⁴그러나 아직도 그가 항일가요 ‘봉선화’의 작곡가로 기억되고 있으니,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일본인 ‘모리카와 준’일 뿐이며 20 년대의 젊은 그가 잠시 민족주의적 행보를 보였다는 것으로 상쇄될 만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악보 1.2: 희망의 아침

희망의 아침

춘원 이광수(香山光郎) 작사
난파 홍영후(森川潤) 작곡

Allegretto

mp

날 이 새 엇 다 희 망 의 아 침
이 러 나 거 라 우 리 임 금
대 룩 이 만 리 대 양 십 만 리

동 편 - 하 늘 에 솟 는 햇 - 발 - 은
분 부 - 반 자 와 일 역 일 - 심 - 히
대 아 - 세 아 의 대 공 책 - 국 - 의

mf

다 들 받 - 으 라 들 뵙 반 아 서
넓 은 대 - 지 에 팔 뵙 일 우 의
우 리 일 - 장 기 날 리 는 곧 끝 이

cresc.

소 리 소 리 높 여 서 만 세 불 러 라
새 - 론 - 세 계 를 일 복 욕 하 람 고
자 자 손 손 만 대 의 의 복 누 릴 국 토

체제에다 부분적인 서양음악체제로 작품을 모아 보급시키는 한편 ‘가정가요’란 이름으로 제1집을 발행, 널리 권장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미 이광수가 “당신의 오빠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임금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임금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정신입니다”라며 조선청년들에게 일본천황폐하의 ‘우리나라 일본을 지키십시오’ 뜻을 받아 일장기 휘날리며 지원하라는 거짓 합의성을 유도해나갈 때 홍난파는 요나누키 음계⁵⁾를 솔직하게 사용하여 2

박자 요나누키 노래를 참노래체계인 양 조건화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징병제 실시에 앞서 『매일신보』가 전국에 현상모집한 개병(皆兵)의 노래 1,800여 편 중 6차의 심사 끝에 당선된 「우리는 제국군인」(김정의 작사, 김용환 곡)과 「어머니의 기원」(新本景作 작사, 김기현 곡) 등 미야코부시 음계와 어김없는 2박자 노래로 신문·방송을 통해 전파되었고 학교에서 선전·방송·교육되고 있었다. 이외에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선정한 「개정 조선교육령과 육군특별지원병령 양제도 실시 축하행진의 노래」(요나누키 음계, 2/4 박자), 정보과가 선정한 「반도 청년의 노래」(장 음계, 4/4 박자, 일어), 미·영 격멸의 노래인 「승리한 일본」(田中初夫 작사, 大場勇之助 작곡, 요나누키 음계, 2/4 박자, 일어) 등이 창작·보급되었다.⁶

이 글은 노동은, 일제하 음악사회의 성격, in 이건용·노동은(공저) 『민족음악론』 (한길사, 1993), pp. 293-352 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memoir 및 musixtex 조판 테스트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여백주석은 모두 편집자가 붙인 것으로 원문에는 없다. 참고로 이 글에서 노동은은 ‘요나누키’, ‘미야코부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이것은 노동은 자신이 후에 ‘장조 요나누키’, ‘단조 요나누키’라는 표현으로 교정한 것으로 안다.

⁵도·레·미·솔·라의 장조 요나누키와 라·시·도·미·파의 단조 요나누키가 있다. ‘왜색’은 이 일본식 오음음계에서 파생하였다. 아직도 이른바 ‘성인가요’ 중에는 이 요나누키 음계에 기반한 유행가가 많다.

⁶단조 요나누키 음계를 미야코부시라고 하기도 한다.